

해외 배낭여행 결과보고서

(여행팀명 : 유러피안스타일)

I 개 요

- 여행기간 : 2014. 11. 22 ~ 11. 30
- 국 가 : 체코, 헝가리, 오스트리아, 독일
- 견학시설 : 동유럽 4개국의 각종 궁전 및 성채 등 견학
- 팀 인원 : 7명
- 주요내용
 - 선진문화의 대표주자인 독일 및 오스트리아의 문화와 도시 인프라에 대한 지식 습득
 - 체코, 헝가리, 오스트리아, 독일의 선진 시설 및 문화·예술시설 비교 체험
- 일 정
 - 제 1 일차 : 인천 - 체코(프라하)
 - 제 2 일차 : 헝가리(부다페스트)
 - 제 3 일차 : 오스트리아(비엔나)
 - 제 4 일차 : 잘츠카머구트(할슈타트)
 - 제 5 일차 : 체코(체스키 크롬로프)
 - 제 6 일차 : 독일(플젠)
 - 제 7 일차 : 체코(프라하)
 - 제 8 일차 : 체코(프라하) - 인천
 - 제 9 일차 : 인천 - 부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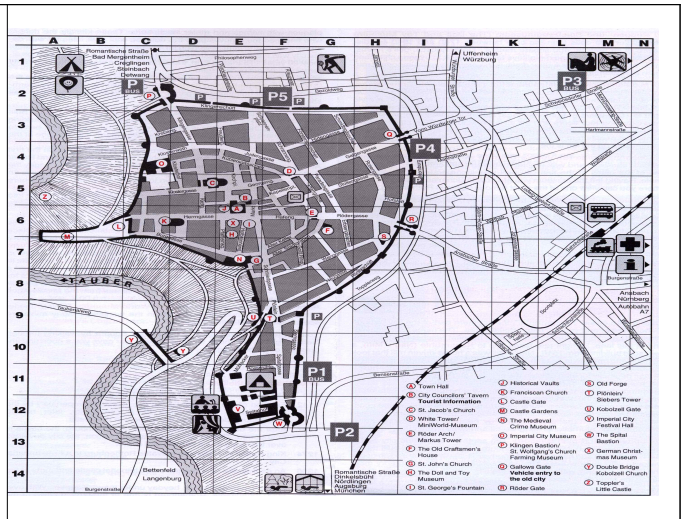


II 독일 국가개요

- 국 명 : 독일(Germany)
- 정부형태 : 연방공화국
- 면 적 : 357,022km²(세계 63위)
- 인 구 : 약 80,996,685명(세계 17위)
- 민 족 : 독일인80%, 기타 20%
- 종 교 : 카톨릭(60%)과 개신교 공존
- 언 어 : 독일어
- 1인당 GDP : 47,201\$
- 화폐단위 : 유로(EUR)
- 기 후 : 서유럽의 해양성기후와 동유럽의 대륙성 기후 중간
- 주요산업 : 자동차산업
- 병역제도 : 지원병제(현역 184,000명)



독일 지도



독일 국가 대표사진

II 헝가리 국가개요

- 국 명 : 헝가리(Hungary)
- 정부형태 : 의원내각제
- 면 적 : 93,028km²(세계 110위)
- 인 구 : 약9,919,128명(세계 89위)
- 민 족 : 헝가리인 85%, 기타
- 종 교 : 카톨릭 74%, 개신교4.6% 등
- 언 어 : 헝가리어
- 1인당 GDP : 13,154\$(세계 57위)
- 화폐단위 : 포린트(HUF)
- 기 후 : 대륙성기후이며 연평균 기온이 10.5℃
- 주요산업 : 농업
- 병역제도 : 지원병제



헝가리 지도



헝가리 대표사진

II 체코 국가개요

- 국 명 : 체코(Czech)
- 정부형태 : 대통령제(양원제⇒상.하원제)
- 면 적 : 78,867km²(세계 116위)
- 인 구 : 약10,627,448명(세계 82위)
- 민 족 : 체코인 90%,
- 종 교 : 가톨릭 (26.8%), 개신교 (2.1%)
- 언 어 : 체코어
- 1인당 GDP : 18,985\$(세계 43위)
- 화폐단위 : 코루나(CZK)
- 기 후 : 습지가 많은 대륙성기후(여름 강수량 많음, 겨울은 눈이 많음)
- 주요산업 : 식료품공업, 기계/화학공업, 관광업
- 병역제도 : 지원병제



체코 지도



체코 대표사진

II 오스트리아 국가개요

- 국 명 : 오스트리아(Austria)
- 정부형태 : 내각책임제
- 면 적 : 83,871km²(세계 114위)
- 인 구 : 약8,223,062명(세계 94위)
- 민 족 : 게르만족 계통의 오스트리아인 대부분
- 종 교 : 로마카톨릭 84% 등
- 언 어 : 독일어
- 1인당 GDP : 51,183\$(세계 11위)
- 화폐단위 : 유로(EUR)
- 기 후 : 서유럽의 해양성기후와 동유럽의 대륙성 기후 중간
- 주요산업 : 서비스업(관광업)65.8%, 제조업32.3%, 농업1.7%
- 병역제도 : 징병제



오스트리아 지도



오스트리아 대표사진

IV 결 과

□ 로만티세슈트라세(로만틱가도)

독일 중남부의 뷔르츠부르크에서 쾰른까지의 약 360km에 이르는 도로의 호칭으로 원래는 로마로 이어지는 교역로에서 따온 이름이다.

이 가도를 따라서 로텐부르크, 뇌르트링겐을 비롯한 중세의 모습이 남아 있는 소도시들을 이어, 제2차 세계대전 후 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개발되었다.

○ 로만티세슈트라세의 시작점, 뷔르츠부르크



< 레지덴츠 >



< 레지덴츠 정원 >

유네스코 세계문화 유산이기도 한 레지덴츠는 나폴레옹이 유럽에서 가장 아름다운 주교관이라고 불렀던 곳으로, 유럽 바로크 건축양식의 완결판으로 평가되는 건물이다. 아름다운 외관과 정갈한 정원에 호화로운 인테리어가 결합된 곳으로, 천상의 궁전을 현실로 옮겨놓지 않았나 싶을 정도다.

전체적으로 'ㄷ'자 모양을 한 건물에는 '황제의 정원'을 비롯하여 여러 개의 정원이 바로크 양식으로 아름답게 조성되어 있다.

○ 중세의 보석, 로텐부르크



< 로텐부르크 >



< 마르크트 광장 >

중세의 보석으로 불리며, 로만틱가도의 하이라이트인 로텐부르크는 고딕양식의 건축물들로 이뤄져 있으며, 중세의 도시로 이루어진 로만틱가도 중에서 가장 완전하게 중세의 모습을 간직하고 있다.

마르크트 광장의 벽시계에서는 매시 정각마다 술을 마시는 인형들의 퍼포먼스가 있는데, 이는 30년 전쟁당시 포도주 한통을 다 마시면 로텐부르크를 치지 않겠다는 적군의 제안에 시장이 포도주를 단숨에 들이킨 사건을 재현한 것이다.

○ 백조의 성, 노이슈반슈타인



< 노이슈반슈타인 성 >

노이슈반슈타인 성은 수많은 엽서, 퍼즐, 광고는 물론 유명한 디즈니랜드의 잠자는 숲 속의 미녀에 등장하는 성의 모델까지 된 덕분에 한눈에 알아볼 수 있다. 역사상 가장 드라마틱한 성 중의 하나로, 바이에른의 왕 루트비히 2세가 전설속의 성을 꿈꾸며 1868년부터 짓기 시작하였으며, 평소 바그너의 음악을 사랑하던 왕은 바그너의 오페라 로엔그린에서 기사가 백조를 타고 사라지는 장면을 좋아해 성의 이름을 노이슈반슈타인(새로운 백조의 석성)이라고 지었다.

노이슈반슈타인 성을 비롯한 환상적인 중세의 성을 짓는 데 여생의 대부분과 재산의 전부를 쏟아 부었지만 1886년 그가 세상을 떠날 때까지 완성되지 못했다. 루트비히 2세는 성이 관광지로 전락하는 것을 원하지 않아 자신이 죽으면 성을 부숴버리라고 유언했다. 하지만 성은 부서지지 않았고 지금까지 바이에른의 훌륭한 관광 자원으로 남아 있다.

□ 독일 남부 바이에른의 중심지, 뮌헨

베를린과 함부르크에 이어 독일 제3의 도시인 뮌헨은 인구 130만명으로 12세기 이래 700년 동안 독일에서 가장 화려한 궁정문화를 꽃피웠던 중세 바이에른 공국의 수도이자 남부 독일 바이에른 주의 주도로 미술관, 박물관, 교회, 궁전 등 다양한 볼거리를 지니고 있어 문화와 예술, 교통, 금융, 산업의 중심지이다. 또한 세계적인 명차 BMW와 매년 가을에 열리는 세계적인 맥주 축제는 뮌헨의 분위기를 더욱 활기차게 만들어 준다



○ 뮌헨을 대표하는 프라우엔 교회

나란히 솟은 두개의 쌍둥이 탑이 멀리서도 눈길을 끄는 프라우엔 교회는 1468~1488년에 세워진 것으로 신 시청사와 함께 뮌헨의 상징이다. 두개의 쌍둥이 탑은 실제 북탑이 99m, 남탑이 100m 높이로 1m 차이가 난다지만 아무리 올려다봐도 그 차이를 느낄 수 없다.

○ 마리엔 광장과 뮌헨시청사



< 시청사 >



< 노이하우저 거리 >

뮌헨의 중심이라 할 수 있는 마리엔 광장에 위치한 신 시청사는 1867년부터 1909년까지 무려 42년에 걸쳐 세워진 네오고딕 양식의 건물로 현재의 부지에 건축하기 위해 이전의 건물 24채를 헐어야 했다고 한다. 특히 85m의 시계탑에는 인형시계가 있어 매일 세 번 인형들이 나와 음악에 맞춰 움직이는데 그 모습을 보기 위해 수많은 관광객이 모여들고 있다. 우리나라의 네모반듯한 청사 건물과는 비교할 수 없는 아름다운 청사건물에 한번 놀라고 인형극을 준비하여 관광객을 유치하는 뮌헨시의 아기자기함이 감탄을 자아낸다.

□ 견학 소감

르네상스와 바로크·로코코 양식의 풍부한 문화적 역사적 유산과 아름다운 자연 경관을 갖춘 예술의 도시 뮌헨은 제2차 세계대전 때에는 괴멸에 가까운 피해를 입었으나, 시가지는 예전의 모습 그대로 훌륭하게 재건되었다.

전쟁의 상처를 성실과 근면으로 이겨낸 그들의 모습은 소중하고 경건한 교훈을 줄 뿐 아니라, 아름다운 시청사와 인형극까지 크고 작은 노력으로 사람을 감동하게 하는 뮌헨시의 정성은 우리 공단에도 적용해야 할 것이다.

□ 예술과 문화의 도시, 빈

오스트리아 빈은 16세기 초반부터 20세기 전반까지 유럽의 문화와 정치 중심지이자 유럽 음악의 본고장으로 번영을 누렸던 곳으로 명성에 걸맞게 지금도 수백 년의 영화를 보여주는 웅장한 건축물과 기념물, 정원과 공원 등이 그대로 남아 있어 문화와 예술, 관광의 중심지이다.

유럽 대도시 중에서 가장 먼저 커피 문화를 받아들여 19세기말의 고풍스런 문학 카페의 전통이 남아있으며, 빈 전통의 커피하우스들의 매력이 만만찮다.

최근 2001년에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었다.

○ 빈의 상징물, 성 슈테판 성당



빈의 심장부인 슈테판 광장에 자리 잡고 있는 로마네스크 및 고딕 양식의 대성당은 루돌프 4세가 주도하여 지어진 것으로, 대성당이 있기 전에 있었던 두 채의 옛 성당 유적지에 세워진 것이다. 슈테판 대성당은 오스트리아의 역사에서 중요한 사건마다 산 증인의 역할을 해왔으며, 다양한 색상으로 꾸며진 지붕 타일 덕분에 빈을 상징하는 랜드마크가 되었다. 모차르트의 결혼식과 장례식이 치러진 곳으로도 유명하다.

○ 북쪽의 로마, 잘츠부르크



< 미라벨 정원 >



< 모차르트 생가 >

교회와 궁전 등 바로크 건축의 작품이 많이 보존되어 있어 북쪽의 로마라고 부른다. 지명은 소금의 산이라는 뜻으로 예로부터 소금 산지로서 유명하며, 지금도 이곳의 소금이 전국에 공급되고 있다.

모차르트의 생가 외에도 영화 사운드 오브 뮤직의 배경으로 잘 알려진 미라벨 정원 등 볼 거리가 많다.

○ 잘츠카머구트의 진주, 할슈타트



< 할슈타트 >



<소금광산>

1997년부터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할슈타트는 호수 기슭 경사면을 깎아서 집을 지은 오래된 마을로 유명하며 예전에는 소금광산으로, 세계최초의 소금광산도 이곳에 있었다고 한다. 귀한 소금산지였던 덕에 풍요로운 과거를 지녔던 마을은 소금산업의 중심지가 옮겨가면서 관광지로 모습을 바꿔 갔다.

소금광산의 모습은 예전 그대로 남아 있어 다흐슈타인 산에 오르면 광산의 흔적을 만날 수 있다.